



Original Article

A Study of Educational Need, Attitude and Knowledge toward Menopause in Middle-aged Women*

Choi, Myung-Sook¹⁾ · Park, Jeoung-Weon¹⁾

1) Department of Nursing, Seoil College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한 교육요구도,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최 명 숙¹⁾ · 박 정 원¹⁾

1) 서일대학 간호과 부교수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ducational need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menopause in middle-aged women. **Method:**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tud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1 middle-aged women. Data was collected from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October 2 to November 30, 2007. **Result:** The score of educational needs towards menopause was relatively high at 3.83/5. The score of educational needs related to 'Osteoporosis'(3.99 score), 'Cardiovascular disease'(3.91 score), and 'Hormone replacement therapy'(3.87 score) was relatively high. The score of knowledge towards menopause was relatively low at 17.28/30. The score of attitude towards menopause was neutral at 2.3/4.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menopause revealed a negative significant correlation ($r=-.194$, $p=.003$).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s towards menopause revealed a positive significant correlation ($r=0.275$, $p<.0001$). The degree of educational needs of women before menopause is higher than in

menopausal women. **Conclusion:**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continuing educational program according to age and menopause condition. Specialists (Nurses) must give information about menopause for a positive attitude toward menopause.

Key words : Menopause, Knowledge, Attitude, Educ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은 81.9세(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로 우리나라 여성의 대부분은 51-52세에 폐경을 맞이하며, 평균 폐경연령을 48세로 보았을 때 폐경 이후 예상되는 기대여명은 일생의 약 1/3 을 웃도는 30년에 이르고 있다. 전체여성 중 50세 이상의 여성 인구가 22.2%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로 폐경기 이후 여성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서일대학교 2007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투고일: 2008. 8. 12 1차심사완료일: 2008. 9. 9 2차심사완료일: 2008. 10. 18 최종심사완료일: 2008. 12. 9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Myung-Sook(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Seoil College

Seoil College gil 22(Myoenmok-Dong 49-3), Jungnang-Ku, Seoul 131-702, Korea

Tel: 82-2-490-7514 Fax: 82-2-490-7225 E-mail: yeoneun@ seoil.ac.kr

폐경은 월경의 영구적인 중지로 의학적으로는 12개월 이상 월경이 중지된 것을 말한다(Avis, Crawford, Stellato, & Lonscope, 2001). 그 진행은 월경주기가 비교적 규칙적이며, 지난 3개월 이내에 월경을 한 폐경전기(premenopause), 월경이 불규칙해지며 지난 12개월 이내에 월경을 한 폐경기(perimenopause), 지난 12개월 이내에 월경을 하지 않은 폐경 후기(postmenopause)를 거친다. 여성은 폐경기에 열감(안면홍조), 복부팽만, 손발 저림, 요통, 기억력감소, 관절통, 피곤, 짜증, 건망증, 피부증상, 근육통, 발한, 요로증상, 불면증, 성교통, 정서변화, 골다공증 등의 다양한 신체, 정신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다(Anderson & Posner, 2002; Ha, 2001; Lee et al., 2000). 갱년기 여성의 70% 이상이 폐경증상을 경험하고 이중 25%정도 내외에서 심한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요하므로 적절한 간호중재법이 필요하다(Song, 2006).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고 폐경기 이후의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방법이 발표되어 왔으며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폐경증상 완화방법으로는 호르몬 대체요법(Chung, Yun, & Kim, 2004)과 이소플라본을 포함한 식이섭취(Park, 2003; Won et al., 2001), 운동요법(Kim, 2007), 보완대체요법으로 향기요법(Shin, 2006), 수지요법(Song, 2006), 요가(Kim, 2005), 태반요법(Park, 2006), 마사지(Yang, Park, & Lee, 2008) 등의 효과가 보고 되었다. 이와 같이 폐경 후 건강관리에 대한 방법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중년기 여성들이 폐경 후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완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대상자에게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폐경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폐경기 여성 스스로가 폐경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폐경에 관한 지식은 장기간의 폐경기간 동안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Lee, Chang, & Yoo, 2003). 또한 폐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폐경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다(Choi, 2002; Kwak, 2006). 그러나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들의 폐경지식과 폐경관리 정도는 낮은 편이며(Kwak, 2006; Lee et al., 2003; Park, Lee, & Cho, 2002; Song, 1997) 폐경에 대한 태도연구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Kwak, 2006). 중년기 여성의 폐경지식은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가 되므로 폐경교육이 필요하며(Hyun, 2003), 중년기 여성의 생의 발달단계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폐경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Choi, 2002).

간호학 전공자들은 임상, 학교,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폐경기 여성들과 접하게 되며 폐경기 여성들의 요구에 따라 폐경기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위치에 있게 된다. 폐경기는 건강유지와 질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간호사는 여성들에게 폐경에 관한 최근정보와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폐경기 여성 스스로 자기에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폐경에 대한 태도와 지식정도, 폐경증상을 조사한 연구(Hyun, 2003; Kwak, 2006; Lee et al., 2003; Park et al., 2002)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중년기 여성들이 폐경에 관해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연구 없이 폐경에 관한 교육이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자들의 교육 요구도를 기초로 작성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중년기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게 된다면 자기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적절히 관리하여 건강관리는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폐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도와 태도를 파악하고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폐경기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한 지식정도를 파악한다.
-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도, 지식, 태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중년기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도, 지식, 태도를 파악한다.

2. 용어 정의

1) 폐경에 대한 태도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한 평가적 견해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Neugarten, Wood, Kraines와 Loomis(1963)가 개발한 폐경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Choi(2002)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폐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폐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폐경을 여성의 생의 주기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폐경 이후의 생활이 더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폐경지식

폐경지식이란 중년기 여성이 생식기에서 비 생식기로 전환되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이해하는 정도를 말하며(Lee et al., 2003), 폐경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폐경에 관한 문헌(Choi, 2002; Hyun, 2003)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폐경연령, 폐경원인, 폐경기증상, 골다공증, 폐경증상관리 등에 대한 지식을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3)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도

교육 요구도란 중년기 여성이 폐경과 관련하여 교육받기를 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폐경에 관한 이전 문헌(Choi, 2002; Hyun, 2003; Song, 1997)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총 42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도, 폐경 지식, 폐경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거주하는 40-65세의 중년기 여성 231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7년 10월 2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이를 위해 S시에 소재한 대학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중년여성과 아파트 부녀회, 교회 여신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중 최종적으로 231부(77%)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폐경에 대한 태도

폐경에 대한 태도 측정은 Neugarten 등(1963)이 여성의 폐경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제작한 도구를 Choi(2002)가 번역하고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폐경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측정하는 ‘부정적 인식’ 영역 6문항, 폐경 후에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측정하는 ‘폐경 후 기대감’ 영역 9문항, 폐경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는가를 측정하는 ‘인생의 연속’ 영역 3문항, 폐경증상의 조절 가능성을 측정하는 ‘증상조절’ 영역 3문항, 폐경으로 인한 정신적 변화의 초래를 측정하는 ‘정신적 변화’ 영역 4문항, 폐경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측정하는 ‘불 예측’ 영역 2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6영역 27문항 이었다. 응답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이며 부정적 태도 문항은 역 문항 처리하여 점수화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08점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항수로 나눈 점수로 해석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폐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4점 만점에 2점 이하를 부정적인 태도로 해석하였다.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hoi(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 이었으며 각 하부영역별 신뢰도는 부정적 인식 .76, 폐경 후 기대감 .84, 인생의 연속 .71, 증상조절 .70, 정신적 상실 .65, 불 예측 .71 이었다.

2) 폐경지식

폐경지식 측정도구는 폐경에 관한 문헌(Bae, 2006; Choi, 2002; Han, 2004, Hyun, 2003; Kim, 2005; Kwak, 2006; Park, 2003; Song, 2006)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폐경연령, 폐경원인, 폐경기증상, 골다공증, 폐경증상관리에 대한 것이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척도를 만들고 중년기 여성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분석을 시도하여 불필요한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각 문항 제거 시 Cronbach's α 의 변화, 문항과 문항과의 상관관계 및 문항과 전체문항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도구개발 후 간호학교수 5명과 산부인과 전문의 1명의 자문을 얻어 수정하였으며, 내용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간호학교수 5명에게 각 문항마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1점, ‘타당하지 않다’ 2점 ‘타당하다’ 3점, ‘매우 타당하다’ 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점수 3점보다 낮은 문항은 삭제하였다. 각 문항은 ‘맞다’ ‘틀리다’ ‘모른다.’ 중에 응답하게 한 후 정답인 경우 1점 틀리거나 모르는 경우 0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까지 이다. 또 각 문항의 정답률은 전체 응답자에 대한 정답 응답자의 백분율(%)로 처리하였으며 최저 0%에서 최고 100%까지 이다. 점수나 정답률이 높을수록 중년여성의 폐경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전체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86 이었다.

3) 폐경에 대한 교육요구도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해 폐경기 증상이 있는 중년기 여성과 면담을 통해 폐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1차로 선정하고 이전의 문헌(Bae, 2006; Choi, 2002; Han, 2004, Hyun, 2003; Kim, 2005; Kwak, 2006; Park, 2003; Song, 2006)들을 참고하여 예비척도를 만들고 중년기 여성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분석을 시도하여 불필요한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각 문항 제거 시 Cronbach's α 의 변화, 문항과 문항과의 상관관계 및 문항과 전체문항과의 상관

관계를 고려하였다. 하위영역은 폐경특성 5문항, 폐경증상 4문항, 골다공증(후기증상) 6문항, 심혈관계 질환(후기증상) 6문항, 폐경증상관련요인 8문항, 호르몬대체요법 5문항, 폐경증상완화방법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 척도는 ‘매우 알기를 원한다’ 5점에서 ‘전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1점 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42점에서 210점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항수로 나눈 점수로 해석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7이었으며 각 하부영역별 신뢰도는 폐경특성 .86, 폐경증상 .89, 골다공증 .93, 심혈관계 질환 .93, 폐경증상관련요인 .90, 호르몬대체요법 .92, 폐경증상완화방법 .91이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는 SAS 9.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도, 폐경 지식, 폐경에 대한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도, 폐경 지식, 폐경에 대한 태도는 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 검증방법으로는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로 분석하였다.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도, 폐경지식, 폐경에 대한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45-54세가 65.4%였으며 교육정도는 고졸이 50.0%(1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32.7%(74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48.2%(108명)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79.5%(178명)로 없는 경우 보다 많았다. 한 달 평균 수입은 300만 원 이상이 33.8%(74명)이었으며, 200-300 만원 미만은 37.9%(83명)이었다. 결혼만족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3.2%(134명)로 가장 많았으며 BMI는 18.5-25미만이 69.3%(160명)이었다. 유산횟수는 1회가 42.5%(82명)로 가장 많았다. 폐경상태는 규칙적 월경이 16.7%(35명), 폐경전기 33.3%(70명), 폐경기 9.5%(20명), 폐경후기가 40.5%(85명)이었다. 월경 시 불편감이 있었던 경우가 63.6%(131명)으로 불편감이 없었던 경우보다 많았다. 생활만족도 점수는 80이상이 43.7%(101명)이었다.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70%(147명)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성생활 만족도는 55.7%(113명)이 ‘그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Table 1>.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1)

Characteristics	Category	n(%)
Age(years)	40-44	28(12.12)
	45-49	83(35.93)
	50-54	75(32.47)
	55-59	32(13.85)
	60-64	13(5.63)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ion	69(31.36)
	High school graduation	110(50.0)
	College & university graduation,	41(18.64)
	graduate school graduation	
Job	Yes	74(32.74)
	No	152(67.26)
Menopause condition (period after last menstruation)	It did not become menopause	35(16.67)
	3 months under	70(33.33)
	3 months-1 years	20(9.52)
	Above 1 years	85(40.48)
Religion	Christianity	108(48.21)
	Buddhism	41(18.30)
	Catholicism	25(11.16)
	None	46(20.54)
	Other	4(1.79)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21(9.59)
	100 - less than 200	41(18.72)
	200 - less than 300	83(37.90)
	≥ 300	74(33.79)
Satisfaction about marriage	Satisfaction	59(27.83)
	Average	134(63.21)
	Unsatisfaction	19(8.96)
BMI	< 18.5 low weight	22(9.52)
	18.5 - less than 25 normal weight	160(69.26)
	25 - less than 30 Over weight	46(19.91)
	≥ 30 Obesity	3(1.30)
Number of abortion	0	38(19.69)
	1	82(42.49)
	2	42(21.76)
	3	19(9.84)
	≥ 4	12(6.22)
Discomfort of menstruation	Yes	131(63.59)
	No	75(36.41)
Alcohol	Yes	65(30.37)
	No	149(69.63)
Coffee(Cup/day)	No	58(28.71)
	1-2 cup	117(57.92)
	3-4 cup	24(11.88)
	> 5cup	3(1.49)
Satisfaction about daily life	< 20	28(12.13)
	20 - < 60	24(10.39)
	60 - < 80	78(33.77)
	≥ 80	101(43.73)
Perception about health status	Very health	15(7.14)
	Health	147(70)
	Not healthy	48(22.86)
Satisfaction about sexual life	Very satisfaction	14(6.90)
	Satisfaction	56(27.59)
	Average	113(55.67)
	Unsatisfaction	15(7.39)
	Very unsatisfaction	5(2.46)

<Table 2> Mean score of attitudes toward the menopause

(N=231)

Sub-category M±SD	Contents	M±SD
Negative recognition 2.25±0.55	The menopause is the experience which is unpleasant in the women.	2.13±0.81
	The fact that the women dislike a menopause is the natural thing.	1.95±0.77
	If women become menopause, they will have the problem which follows in menopause.	2.89±0.88
	If women become menopause, they will be in confusion.	2.13±0.82
	If women become menopause, they will be in low spirits.	2.28±0.81
	If women become menopause, they will be depressed.	2.15±0.75
Expectation feeling after menopause 2.01±0.47	The women when becomes the menopause, the feeling will get better before menopause.	1.86±0.66
	If women become menopause, they will to have wider opinion about life.	2.57±0.83
	If women become menopause, they will be full of confidence than before the menopause.	1.87±0.65
	If women become menopause, they will be calmer and will be happier.	1.92±0.68
	If women become menopause, they feel life will be more joyful.	1.88±0.66
	If women become menopause, they will work for own oneself with rein.	2.16±0.82
	If women become menopause, they will get better the relationship with the husband.	1.93±0.66
	The women will think that menopause is the best thing until now for their life.	1.66±0.63
Continuation of life 2.45±0.65	If women become menopause, they will have interest in the neighborhood.	2.29±0.78
	There are change of the body when women become menopause, but the change are not considerable.	2.62±0.78
	If women become menopause, there is not a difference which is more different their menstruation is discontinued.	2.26±0.87
Management of condition 2.29±0.64	The women become menopause the thing are not that the woman being important changes.	2.46±0.81
	The women who undergo a pain in menopause condition usual has many time.	2.25±0.88
	If women think that menopause are difficult, they will undergoes a pain in menopause.	2.37±0.82
Psychological change 2.76±0.46,	The women feel the pain which is caused by menopause which is not control power about change of physical process.	2.25±0.88
	If women become menopause, they will become self-centered.	2.79±0.68
	If women becomes menopause, the women of most think the woman is not.	2.59±0.75
	The women use with one duty arousing the interest of the people, for the fact that had become the menopause.	3.22±0.66
Non-prediction 2.51±0.46	If women becomes menopause, they will worry to feel being empty.	2.44±0.74
	If women becomes menopause, they will act strange.	2.67±0.76
	The menopause experience is not understood and a work which is mysterious.	2.36±0.82
Total mean score of attitudes toward the menopause		2.30±0.30

2. 대상자의 폐경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폐경에 대한 태도는 <Table 2>와 같다. 폐경에 대한 태도 총 평균점수는 2.3±0.30점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 ‘정신적 변화’가 2.76±0.46, ‘불 예측’ 2.51±0.46점, ‘인생의 연속’ 2.45±0.65점, ‘증상조절’ 2.29±0.64점, ‘부정적 인식’ 2.25±0.55점, ‘폐경 후 기대감’이 2.01±0.47점 순이었다. 문항별로 평균 점수가 2점 이하인 것은 ‘여성들은 폐경을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폐경이 되면 여성들은 폐경전보다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폐경이 되면 여성들은 자신감이 커질 것이다’, ‘폐경이 되면 여성들은 인생이 더 살맛나게 느껴질 것이다’, ‘폐경이 되면 여성들은 폐경 전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질 것이다’, ‘폐경 후 여성들은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다’, ‘여성들이 폐경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이었다.

3. 대상자의 폐경에 대한 지식 정도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한 지식정도는 <Table 3>과 같다. 지식의 총 정답률은 61.0% 이었으며 영역별 정답률에서 ‘골

<Table 3>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of knowledge toward the menopause (N=231)

Category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Characteristic of menopause	81.19
Menopausal symptom	72.75
Osteoporosis	86.34
Cardiovascular system disease	27.94
The factor which relates with a menopause condition	50.06
Hormone replacement therapy	56.51
The method which reduce a menopausal symptom	52.05
Total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60.98

다공증(후기증상)이 86.3%로 가장 높았으며 ‘폐경특성’이 81.2%, ‘폐경증상’ 72.8%, ‘호르몬대체요법’ 56.5%, ‘폐경증상 완화방법’ 52.1%, ‘폐경증상관련요인’ 50.1%, ‘심혈관계 질환’ 27.9%의 순이었다.

4. 대상자의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도

대상자의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 도는 <Table 4>와 같다. 교육 요구도의 총 평균점수는 3.83 ± 0.54 점이었으며 영역별에서 골다공증 3.99 ± 0.59 점, 심 혈관계질환 3.91 ± 0.67 점, 호르몬 대체요법 3.87 ± 0.73 점, 폐경증상 3.86 ± 0.69 점, 폐경증상완화방법 3.79 ± 0.70 점, 폐경증상관련요인 3.73 ± 0.64 점, 폐경특성 3.65 ± 0.67 점 이었다. 교육 요구도가 4점 이상인 문항은 ‘폐

<Table 4> Mean score of educational needs toward the menopause

(N=231)

Category	Items	M \pm SD
Characteristic of menopause	About the time where the menopause is started	3.42 \pm 0.86
	About cause of menopause	3.70 \pm 0.83
	About the method which diagnoses a menopause	3.67 \pm 0.84
	About change of female hormone of menopause	3.80 \pm 0.69
	About change of female reproductive organ (ovary, uterus etc) of menopause	3.68 \pm 0.83
Menopausal symptom	About the body condition(Lumbago, myalgia, arthralgia and fatigue feeling and sleep disorder) which appears in menopause	3.92 \pm 0.77
	About the mental and psychological condition (Decrement of accomplish craving, obstacle of the power of concentration and lonely feeling, a feeling of uneasiness and depression, emotional change, memory decrement and amnesia) which appears in menopause	3.86 \pm 0.79
	About the vasomotor condition (face flush, the night time sweat, chilling and dizziness, palpitation) which appears in menopause	3.84 \pm 0.77
	About the symptom of urinary, reproductive system(Reproductive organ atrophy and dyspareunia, change of sexual life and decrement of leukorrhea, frequency and incontinence) which appears in menopause	3.81 \pm 0.80
		3.86 \pm 0.69
Osteoporosis	About symptom of the latter term(osteoporosis) which appears in menopause	3.96 \pm 0.71
	About relation of the menopause and the osteoporosis	4.00 \pm 0.69
	About the method which diagnoses osteoporosis of menopause	3.95 \pm 0.67
	About a method of prevention of osteoporosis of menopause	4.07 \pm 0.67
	About the foodstuffs where the calcium is contained plentifully	3.96 \pm 0.67
Cardiovascular system disease	About the calcium demand change which is necessary to the human body of before and after menopause	3.96 \pm 0.69
	About symptom of the latter term(disease of cardiovascular system and brain · coronary artery disease) which appears in menopause	3.94 \pm 0.74
	About that the menopause related to the disease of cardiovascular system	3.89 \pm 0.77
	About the method which diagnoses cardiovascular system disease of menopause	3.84 \pm 0.81
	About a method of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system disease of menopause	3.94 \pm 0.72
The factor which relates with a menopause condition	About the food where the animal fat and the cholesterol are included plentifully	3.88 \pm 0.72
	About the animal fat and cholesterol affect to the symptom of the latter term of menopause	3.92 \pm 0.78
	About the salty food affects to symptom of menopause	3.88 \pm 0.74
	About the soybean meal and bean product affects to symptom of menopause	3.98 \pm 0.69
	About the stress affects to symptom of menopause	3.96 \pm 0.71
Hormone replacement therapy	About affect of the attitude toward menopause to menopausal symptom	3.82 \pm 0.73
	About the exercise affects to menopausal symptom	3.90 \pm 0.73
	About the caffeine affects to menopausal symptom (osteoporosis)	3.80 \pm 0.77
	About the alcohol affects to menopausal symptom	3.41 \pm 1.00
	About smoking tobacco affects to menopausal symptom	3.19 \pm 1.11
Hormone replacement therapy	About method and process (cost, checkup must receive, therapy session) of hormone replacement therapy	3.81 \pm 0.88
	About strong point of hormone replacement therapy	3.89 \pm 0.77
	About side effect of hormone replacement therapy	3.91 \pm 0.79
	About that the hormone replacement therapy related to breast cancer	4.04 \pm 0.72
	About the condition which is not the possibility of receiving a hormone replacement therapy	3.92 \pm 0.75

<Table 4> Mean score of educational needs toward the menopause(continued)

(N=231)

Category	Items	M±SD
The method which reduces a menopausal symptom	About the exercise which is appropriate to menopause period	4.07±0.65
	About the method which reduces face flush	3.91±0.75
	About the method which reduces an insomnia	3.90±0.84
	About cupping, Koryo hand therapy, moxa cautery, acupuncture	3.67±0.95
	About placenta medical therapy (placenta extractinjection)	3.68±0.97
	About aromatherapy (fragrance medical therapy)	3.72±0.85
	About the medicine (example: feramin, gyneoplus)made with black cohosh material(the vegetability hormone)	3.60±0.97
	About relaxation therapy (meditation and hypogastric breathing, yoga, breath control and muscular relaxation)	3.74±0.95
Total		3.83±0.54

경과 골다공증의 관계에 대하여, ‘호르몬대체요법이 실제로 유방암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폐경기 골다공증 예방에 대하여’, ‘폐경기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운동방법에 대하여’이었다.

5. 대상자의 폐경에 대한 지식정도와 태도, 교육 요구도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폐경에 대한 지식정도와 태도, 교육 요구도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한 지식과 폐경에 대한 태도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194$, $p=.003$). 폐경에 대한 지식과 교육 요구 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75$, $p<.0001$). 그러나 폐경에 대한 태도와 교육 요구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5> Correlations among the attitude, knowledge of menopause and educational need (N=231)

Variable	Attitude r(p)	Knowledge r(p)	Education needs r(p)
Attitude	1		
Knowledge	-0.194(.003)	1	
Educational needs	-0.124(.06)	0.275(<.0001)	1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폐경태도, 폐경지식, 교육 요구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폐경에 대한 태도는 <Table 6>과 같다. 폐경에 대한 태도는 폐경상태, 결혼만족도, 종교, 월수입, 수술 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월수입이 100만 원 이상인 대상자가 100만원 미만인 대상자 보다 폐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F=4.77$, $p=.003$). 자궁과 난소를 동시에 제거한 대상자가 자궁과 난소를 각각 제거한 대상자보다 폐경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3.92$, $p=.012$). 종교의 경우는 기독교, 불교, 가톨릭 이

외의 다른 종교를 가진 대상자가 폐경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3.45$, $p=.009$).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폐경에 관한 지식 정도는 연령($F=3.12$,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50-54세 여성의 지식문항 정답률이 63%로 가장 높았으며 55-59세가 51%, 60-64세가 50%로 낮게 나타났다. 폐경에 관한 정보 습득 경로를 보면 TV를 통해서 49.1%, 친구 39.1%, 이웃 19.1%, 뉴스 15.5%, 책 14.6%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대상자(2.61 ± 0.44)들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2.78 ± 0.46)보다 폐경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4.63$, $p=.03$). 반면에 친척을 통해서 폐경에 관한 정보를 습득한 대상자(3.05 ± 0.48)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2.74 ± 0.46)보다 폐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3.92$, $p=.0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 도는 <Table 7>과 같다. 교육 요구 도는 연령, 폐경상태, 생활만족도, 유산 횟수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연령에 따른 교육 요구 도는 40-44세, 45-49세가 3.91로 가장 높았으며 55-59세가 3.58로 가장 낮았다($F=2.66$, $p=.034$). 폐경상태에 따라서는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는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경이 끝나고 1년 이상 된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가 가장 낮았다($F=2.48$, $p=.041$). 생활만족도에 따른 교육 요구 도는 20-60점인 대상자가 가장 높았으며 반면 20점 미만인 대상자가 가장 낮았다($F=2.95$, $p=.032$). 유산 횟수에 따른 교육 요구 도는 4회 이상 유산한 대상자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F=2.35$, $p=.046$).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 도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폐경특성’, ‘폐경증상’, ‘폐경증상관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8>. 사후검정 결과 ‘폐경특성’에 대한 교육 요구 도는 40-44세, 45-49세 대상자가 55-59세 대상자보다 높았다. 40-44세, 45-49세 대상자는 ‘폐경증상’과 ‘폐경증상관련요인’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았으며 55-59세, 60-64세 대상자의 교육 요구 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

<Table 6> Attitudes toward the menopaus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1)

Variable	Category	n(%)	M±SD	t or F(p)
Menopause condition (period after last menstruation)	It did not become menopause	35(16.67)	2.77±0.32 ^a	2.78(.042)
	3 months under	70(33.33)	2.63±0.40 ^a	
	3 months-1 years	20(9.52)	2.77±0.42 ^a	
	Above 1 years	85(40.48)	2.85±0.54 ^a	
Satisfaction about marriage	Satisfaction	59(27.83)	2.89±0.47 ^a	3.60(.024)
	Average	134(63.21)	2.70±0.47 ^a	
	Unsatisfaction	19(8.96)	2.69±0.37 ^a	
Religion	Christianity	108(48.21)	2.82±0.49 ^b	3.45(.009)
	Buddhism	41(18.30)	2.76±0.29 ^b	
	Catholicism	25(11.16)	2.57±0.50 ^b	
	None	46(20.54)	2.72±0.36 ^b	
	Other	4(1.79)	3.25±0.54 ^a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21(9.59)	2.45±0.59 ^b	4.77(.003)
	100 - less than 200	41(18.72)	2.74±0.44 ^a	
	200 - less than 300	83(37.90)	2.74±0.39 ^a	
	more than 300	74(33.79)	2.86±0.44 ^a	
Surgery	Hysterectomy	23	2.80±0.41 ^a	3.92(.012)
	Oophorectomy	3	2.75±0.25 ^a	
	Hysterosalpingo-oophorectomy	5	2.15±0.74 ^b	
	Others	35	2.79±0.34 ^a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a, b

<Table 7> Educational nee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1)

Variable	Category	n(%)	M±SD	t or F(p)
Age(years)	40-44	28(12.12)	3.91±0.51 ^a	2.66(.034)
	45-49	83(35.93)	3.91±0.54 ^a	
	50-54	75(32.47)	3.86±0.53	
	55-59	32(13.85)	3.58±0.54 ^b	
	60-64	13(5.63)	3.68±0.59	
Menopause condition (period after last menstruation)	It did not become menopause	35(16.67)	4.01±0.47 ^a	2.48(.041)
	3 months under	70(33.33)	3.85±0.50	
	3 months-1 years	20(9.52)	3.94±0.50	
	Above 1 years	85(40.48)	3.73±0.61 ^b	
Satisfaction about daily life	< 20	28(12.13)	3.57±0.60 ^b	2.95(.032)
	20 - < 60	24(10.39)	4.01±0.45 ^a	
	60 - < 80	78(33.77)	3.86±0.54	
	≥ 80	101(43.73)	3.84±0.52	
Number of abortion	0	38(19.69)	3.89±0.34	2.35(.046)
	1	82(42.49)	3.89±0.46	
	2	42(21.76)	3.62±0.65 ^b	
	3	19(9.84)	3.77±0.59	
	≥ 4	12(6.22)	3.95±0.65 ^a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a, b

경상태에 따른 교육 요구도 하위영역은 ‘폐경특성’, ‘폐경증상’, ‘폐경증상관련요인’, ‘심혈관계 질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폐경증상관련요인’, ‘심혈관계 질환’ 영역에서 월경을 규칙적으로 하는 대상자의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마지막 월경 후 1년 이상 된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가 가장 낮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폐경에 대한 태도와 지식 및 교육 요구 도를 파악하여 폐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 폐경에 대한 지식정도는 낮은 수준이며 폐경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간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교육 요구 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기초로 선행연구와 연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자의 폐경에 대한 지식의 평균정답률은 61.0%로 40-60세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등(2003)의 결과 55%보다 높았으며 Park 등(2002)의 연구 결과 62%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폐경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폐경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폐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한 지식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폐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역별 정답률에서 골다공증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폐경특성, 폐경증상, 호르몬대체요법 순이었다. 반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지식정도가 가장 낮았다. Lee 등(2003)의 연구에서도 골다공증 지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정답률이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폐경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경험 한다’와 같은 폐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폐경이 되어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양이 줄어들면 혈관불안정 상태가 나타나고 혈압, 동맥경화증 발생 확률이 높다’ ‘칼슘제제 섭취는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등의 폐경증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기전 등 구체적으로 폐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의 정답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는 폐경증상과 폐경특성에 대한 지식정도는 높으나 폐경증상 관련요인과 폐경증상 완화 방법에 관한 정답률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폐경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폐경 교육을 계획할 때 교육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검토하여 실제적으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폐경증상 완화방법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된 폐경에 대한 태도는 2.3점으로 폐경에 대한 태도는 다소 긍정적이지만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Kwak(2006)의 연구결과 긍정적이지만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45세에서 65세의 폐경기여성들 대상으로 건강지각과 신체상, 우울정도를 조사한 연구(Kim & Moon, 2006)에서 자신의 건강을 보통수준으로 평가하고, 신체상은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우울 점수는 경증 우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폐경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결과라 사료된다. 즉 대상자들은 폐경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정신적인 변화가 올 것이며 인생의 연속으로 증상조절을 하며 지내는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폐경이 되면 몸의 변화가 생기며 폐경에 따른 어떤 문제가 발생 할 것이며 자신도 모르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신비로운 경험과 허전함을 느껴 여성들은 폐경으로 인해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상자들은 폐경을 좋은 일, 자신감이 생기는 시기, 평온하고 행복해지는 시기, 긍정적인 남편과의 관계로 보기

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단계로 평가하고 있었다.

교육 요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차원에서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폐경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영역별 교육 요구 도에서 골다공증이 3.99점, 심혈관계 질환 이 3.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호르몬대체요법과 폐경증상에 관한 것이었다.

이 결과는 3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에 대한 교육 요구 도를 측정한 Chung과 Kim(2004)의 연구에서 교육 요구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골다공증과 심혈관계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여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폐경이후의 기간이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30년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고, 폐경 후 초기보다는 후기에 증상이 심해지는 골다공증과 심혈관계 질환을 잘 관리하여 삶을 건강하게 영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경과 관련하여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호르몬대체요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폐경에 대한 지식 과 교육 요구도를 비교해 보면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골다공증, 폐경 특성, 폐경증상,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나, 지식정도가 높은 영역에 관심이 많으며 그 영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있어 교육 요구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요구도가 4점 이상인 문항은 ‘폐경과 골다공증의 관계에 대하여’, ‘호르몬 대체요법이 실제로 유방암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폐경기 골다공증 예방에 대하여’, ‘폐경기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운동방법에 대하여’ 이었다. 현재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특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hung & Kim, 2004), 각각의 관심영역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골다공증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Kim, 2002).

연령별로 조사 대상자의 교육 요구 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40-44세의 월경을 규칙적으로 하는 여성의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폐경에 대한 교육을 계획할 때 폐경의 특성과 건강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폐경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인 35세나 40세부터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60-64세 대상자의 폐경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다른 연령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폐경증상을 경험하고 증상이 다소 완화되어 안정과 적응에 들어간 시기이므로 폐경증상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 요구도 하위영역 중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마지막 월경 후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대상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폐경 시기에 따라 폐경증상을 분석한 연구(Kwak, 2006)에서 폐경 주변기 집단이 폐경기 집단보다

폐경증상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볼 때 폐경 주변 기에 폐경증상이 심해져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점차 호르몬 대체요법이 폐경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호르몬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호르몬 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찬반논란이 초래되어 호르몬 치료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본다. 특히 폐경 주변기인 월경 후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대상자에게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폐경 상태에 따라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은 하위영역과 낮은 영역을 살펴보면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는 대상자는 ‘심혈관계 질환’ 영역의 교육 요구도가 높았으며 ‘폐경증상 완화방법’ 영역이 낮게 나타났으나, 마지막 월경 후 3개월 이내인 대상자는 ‘골다공증’이 가장 높았으며 ‘폐경증상관련요인’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아직 폐경 되지 않은 대상자들은 폐경 증상을 경험하지 않아 폐경증상완화보다는 대중매체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폐경과 관련된 후기증상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 월경 후 3개월에서 1년 미만의 대상자는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해 교육요구도가 높았으며 폐경특성에 대해서는 요구도가 낮았다. 마지막 월경 후 1년 이상 된 대상자는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으며 폐경특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폐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TV로 얻는다고 응답하여 앞으로 전문가 특히 간호사가 주축이 되는 교육을 제공한다면 폐경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에 대하여 논하면 폐경지식은 50-54세가 가장 높았으며 55-59세, 60-64세가 낮게 나타나 이는 연령에 따라서 폐경지식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Kwak(2006)의 연구결과에서 40-49세 대상자가 지식점수가 높고 50-59세 대상자가 지식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Lee 등(2003)의 연구에서 40-44세의 지식점수가 가장 높으며 점점 연령이 많아질수록 지식정도가 낮아지는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정도에 따라서 지식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Lee 등(2003)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연령에 따른 교육 요구도의 경우 40-44세, 45세-49세가 3.91로 가장 높았으며 55-59세가 3.58로 가장 낮았다. 폐경 상태에 따라서는 아직 폐경이 되지 않은 대상자의 교육요구도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경이 끝나고 1년 이상 된 대상자의 교육요구도가 3.73으로 가장 낮았다. 월경을 규칙적으로 하는 대상자의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폐경에 대한 관심은 폐경기 여성 뿐 아니라 모든 중년기 여성의 관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폐경

으로 다가가는 젊은 층의 중년기 여성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폐경기 여성의 교육만큼이나 중요하며 이들을 폐경이 되기 전에 교육함으로써 미리 폐경을 준비하고 폐경기의 건강관리를 계획 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여성의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 만족도가 낮은 여성들은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유산을 많이 한 여성이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아 여러 번의 유산 경험이 자신의 폐경 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폐경에 대한 태도가 교육정도와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폐경에 대한 태도가 교육정도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Kwak, 2006)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월경 후 1년 이상 된 여성이 마지막 월경 후 3개월 이내의 여성보다 폐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은, 폐경이 된 여성이 폐경이 되지 않은 여성보다 폐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Chi(1984)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마지막 월경 후 3개월 이내의 시기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월경정지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폐경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이며, 마지막 월경 후 1년 이상 된 대상자는 폐경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감소되고 적응이 되어가는 단계로 폐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후검정결과 월수입이 많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폐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자궁제거술을 실시한 여성이 자궁, 난관과 난소를 동시에 제거한 여성보다 폐경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생식기를 모두 절제한 여성의 경우 여성의 모습을 잃게 된다는 생각으로 폐경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폐경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폐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폐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경지식과 폐경태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Kwak(2006)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이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전문가가 아닌 대중매체나 친구, 이웃들로부터 폐경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고 있으며 폐경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같이 전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폐경에 대한 개개인의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을 접하게 되어 폐경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전달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폐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간호사를 통한 폐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폐경시기에 나타나는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전문가의 태도와 교육내용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폐경에 대한 지식과 교육 요구도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폐경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폐경이란 여성의 삶의 연속선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폐경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양한 증상과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폐경지식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로 대상자의 높은 교육 요구 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폐경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연령과 폐경 상태 등의 대상자의 특성과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고려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폐경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폐경 되기 전의 중년여성들을 교육에 포함시켜 폐경에 대한 건강관리를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 따라서 중년 여성들은 폐경 교육을 통해 폐경에 관한 지식이 많아지며 이것이 폐경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폐경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도록(Jang, 1998) 하는 것이 폐경교육의 효과라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 231명을 대상으로 폐경에 대한 교육요구도와 지식정도, 태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조사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결과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한 지식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폐경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요구 도는 3.83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교육요구도의 하위영역 중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폐경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경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폐경 단계별 교육 요구 도는 폐경이 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의 폐경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폐경 주변 기나 폐경기 여성들의 교육 요구도보다 높았다.

특히 본 연구결과 폐경되기 전의 여성들의 폐경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폐경에 대한 교육이 폐경기 여성 뿐 아니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모든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 도를 조사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 도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의 대표성 및 표본수의 방법론적 제한점을 보완하여 전국적 규모의 반복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nderson, D., & Posner, N. (2002).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health behaviors for women experiencing menopause. *Int J Nurs Pract*, 8, 265-273.
- Avis, N. E., Crawford, S., Stellato, R., & Lonscope, C. (2001). Longitudinal study of hormone levels and depression: Among women transition through menopause. *Climacteric*, 4(3), 243-249.
- Bae, K. E. (2006). *Instrument development for adaptation of women in the menopause peri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i, S. A. (1984).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aged women's attitudes toward middle adulthood developmental changes and their self-reported climacteric*.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hoi, M. S. (2002). *Effects of a program for relieving menopausal sympto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Chung, D. Y., Yun, B. I., & Kim, S. J. (2004). An updated clinical guidelines and alternatives of postmenopausal hormone therapy. *The Konkuk Journal of Medical Science*, 13(2), 37-45.
- Chung, S. H., & Kim, P. N. (2004). Educational needs of women with osteoporosi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6(1), 55-66.
- Ha, J. Y. (2001). *A study on the menopausal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in middle 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an, S. H. (2004). *A study of on the menopausal symptoms, menopausal management and quality of life in middle 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yun, S. K. (2003). *Menopause knowledge, menopause management and climacteric symptoms for middle 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ang, H. R. (199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toward menopause and the life style for health promotion in middle 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Jeon, H. R., & Park, J. S. (2007). A survey of knowledge of cardiac rehabilitation and the level of educational need of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Clinical Nursing Research*, 13(1), 51-63.
- Kim, S. R. (2002).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xercise video program for prevention of osteoporo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 H. (2005). *The effect of yoga menopausal symptoms and quality of in middle 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Kim, J. H., & Moon, H. S. (2006). Health perception, body image, sexual function and depression in menopausal women according to menopausal stages. *J Korean Acad Nurs*, 36(3), 449-456.

- Kim, S. Y. (2007). *The impacts of weight-bearing exercise and aquatic exercise on middle-aged women's body composition and isokinetic muscle strength and bone mineral den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g-Yang University, Seoul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Life table, www.nso.go.kr.
- Kwak, E. K. (2006). *The midlife women's menopause knowledge, attitude symptoms and manag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Lee, J. H., Chung, Y. K., Park, H. M., Park, J. S., Yumiko, H., & Yeoum, S. G. (2000). A study on climacteric symptoms in korean midwife wome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enopause*, 6(2), 142-156.
- Lee, K. J., Chang, C. J., & Yoo, J. H.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limacteric symptoms, knowledge of menopaus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middle-ag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9(4), 400-409.
- Neugarten, B. L., Wood, V., Kraines, R. J., & Loomis, B. (1963). Women's attitude toward the menopause. *Vita humana*, 6, 140-151.
- Park, H. S. (2003). *Effects of soybean foods intake on menopausal symptom, serum hormones, serum lipids, and bone metabolism in middle-ag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H. S., Lee, Y. M., & Cho, G. Y. (2002). A study on climacteric symptoms, knowledge of menopause, menopausal management in middle-ag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8(4), 521-528.
- Park, J. M. (2006). *The comparison of menopausal syndrome between participation and non participation group of the later period middle-aged women in placenta therap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Shin, S. J. (2006). *Effects of aromatherapy on the menopausal symptoms and depression for climacteric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 Song, A. R. (1997).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program for the management of menopause and it's effe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Song, Y. A. (2006). *Effects of Koryo hand therapy on menopausal symptoms and FSH, LH, estradiol in climacteric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Won, H. J., Lee, B. S., Lee, S. K., Choi, Y., Yoon, S., Park, K. H., Cho, D. J., & Song, C. H. (2001). The effect of isoflavone on postmenopausal symptoms and hormonal changes in postmenopausal wome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enopause*, 7(1), 54-63.
- Yang, K. H., Park, K. S., & Lee, J. R. (2008). The effects of meridian massage on menopausal symptoms and Shin-Hur in middle-aged menopausal women. *J Korean Acad Nurs*, 38(1), 131-139.